



자유주의 정보 19-200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nathan Newman,

3 Ways the Critics Get Praxeology Wrong

21 May, 2017

인간행동학에 대한 세가지 잘못된 비판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이론을 실험 혹은 수학적 모델링이 아니라 연역적 추론에서 구성된다고 이해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이 사실상 모든 사회과학적 접근법과 매우 상이하여 매우 큰 반발을 초래한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이 가장 근본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경제학의 인식론 혹은 방법론적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확인한 미제스의 '인간행동학'(praxeology)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인간행동학은 정말로 논리적이다. 인간행동학은 인간의 선택과 행동의 법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오해1: 행동의 논리학? 많은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다!

인간행동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이 방법론이 모든 사람을 논리적 혹은 합리적으로 가정한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학파가 모든 인간의 행동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러한 오해를 가지게 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잘못된 착각이다. 기상학자의 실험만큼이나, 인간행동학자 역시 춤을 추기로 결정한 원시인의 선택과 행동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action)을 연구하는 것이,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행동(behavior)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기상학자들이 날씨를 연구주제로 삼는다고 해서 기상현상을 제외한 모든 것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기상학이 복통을 다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은 재채기를 다루지 않는다.

오해2: 인간행동학은 경제학 연구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인간행동학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지적 역시 대단히 일반적으로 퍼진 오해이다. 비평가들은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라는 명제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우선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 행동>이나 <인간 경제 국가>를 읽어볼 필요가 있음을 권하고자 한다. 미제스와 라스바드는 인간의 행동에서 출발하여 경제 이론을 도출하고, 정책 분석까지 나아가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책을 저술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간단하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어떻게 인간행동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인간은 선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행동한다. 우리는 한 시점에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지만,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몇 가지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가장 중요하거나 원하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한된 수단을 교묘히 이용하며, 덜 중요한 것의 만족을 포기할 것이다. 즉 수단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목적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을 먼저 달성한 후, 그 목적을 추가로 달성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들고 나서야 점차 낮은 우선순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인간행동학적 추론을 통해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아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다. 행동의 공리에서 연역된 법칙은 보편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결코 위배할 수 없다. 이를 반증하려는 어떤 실험도 의미가 없다. 인간행동학적 법칙은 말 그대로 $1 + 1 = 2$ 라는 진리가 반증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박이 불가능하다. 혹자는 “**도대체 누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반대하는가?**” 라며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이 점에 있어 나는 주류경제학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매우 가까운) 수요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펜재를 옹호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신고전학과 미시경제학에서는 기펜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학파 미시경제학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피터 클라인의 훌륭한 설명을 참조하라.)

오해 3: 인간행동학은 경험을 등한시하고, 쓸모 없다고 여긴다.

비평가들은 오스트리아학파가 경험적 자료를 매우 두려워하고, 현실세계와 자신의 이론이 정합적이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때마다 완강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학파는 데이터, 통계, 수학을 혐오하지 않는다. 단지 이것들이 경제사학 연구나 심리학에서만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뿐, 경제학의 이론적 차원에서는 차지할 자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관찰은 논리적으로 유도된 경제이론을 반증할

수 없다. 오직 제한적으로만, 때때로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전개과정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방법론적 차이는 이론적 결론의 차이를 이끌어낸다. 또 이론적 결론의 차이는 정책 처방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된다. 엄밀하게 따지면 가치중립적 과학인 경제학을 통해 **“최저임금이 있어서 안 된다”** 와 같은 규범적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아무런 실효가 없고 오히려 실업을 유발한다”** 라는 경제학적 사실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게 적어도 상식선에서는 큰 비약이라 볼 수는 없다. 이 점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대부분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법론적 차이의 결과

주류경제학과 오스트리아학파는 서로 다른 인식론적/방법론적 근거에서 출발하여, 매우 상이한 경제이론 교리를 건설한다. 미시경제학의 영역에서는 유사하게 보이는 지점이 약간 있지만, 거시경제의 차원에서는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 주류 거시경제학은 터무니없는 이론, 기이한 정책제한, 그리고 현실의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도의 수학적 모델링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여, 최근엔 주류 거시경제학에서도 오스트리아학파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주류 거시경제학은 그들이 경험과학적 예측력에 근거한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그 어떤 주류경제학자도 2007-08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는데 실패했다.

반면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수년 동안 주택 거품의 위험을 경고해왔다. 이러한 예측력의 차이는, 오스트리아학파가 현실적 인간의 실제적 선택과 행동에 확고한 논리적 기반을 둔 경제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3-ways-critics-get-praxeology-wrong>